공감과 연민의 시대 속에 교사의 역할

천안북중 교사 김유리

출근 전부터 스마트폰이 계속 울린다. 버스가 만차여서 그냥 가버려 지각을 한다는 학생부터, 생리통이 심해 생리결석을 쓰겠다는 등의 학생들의 연락이다. 버스를 눈앞에 놓쳐 속상해서 어쩌냐는, 따뜻하게 배찜질하면 통증이 좀 괜찮더라 등의 공감의 마음을 담아 답장을 보내며 하루를 시작한다. 어쩌면 학교에서의 일상은 다양한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고, 어떤 구석에서는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꿈틀꿈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살고있는 우리에게 공감과 직면을 할 수 있게 하는 상담프로그램도 몇 년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해결의 첫 단추는 공감이 당연한걸지도 모른다.

그간 생활지도를 하면서 공감을 중요시여기고 온맘으로 상담을 하며 때로는 아이의 고민이 더 큰 무게로 나의 고민이 되어 퇴근 후에 저녁을 지으면서 또는 꿈에까지 나오기도 했다. 정서적 고위험군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을 함께 상담하고 지도하며 어느 날에는 나에게까지 우울이 퍼져나갔다. 공감의 홍수 속에 쉽게 소진되고 지치는 나를 돌아보던 참에 홍영일이사님의 강의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해결을 바라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경과학에서 '공감'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거나 상대의 감정상태를 함께 느끼고 혹은 그 감정에 감정이입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한다. 이는 너무나 놀랍게도 '공감 고통'을 유발할 위험이 있고 이런 반응이 만성이 되면 스트레스가 돼 힘이 소진되어 버린다는 말에 나의 그간의 서사가 이해가 되었다.

공감 대신 타인을 염려하고 사랑하되,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연민'은 지나친 감정이입으로 인한 공감 고통이 사라지고 쉽게 소진되지 않는 '보살핌'의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 필요함을 이번 강의를 통해 크게 깨닫게 되었다.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여유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거리룰 두고 문제를 마주할 때 최송일교수님의 디자인씽킹처럼 '문제'를 그저 없애야 하는, 해결해야만 하는 암덩어리로만 보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을 하며 문제의 배경과 원인을 귀기울이며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갖고 문제를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인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넉넉하게 경청하는 듣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리라. 그럼 학생들은 서로협력하여 수많은 도전과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 새롭고 더 나은 또 다른 가치와 결과물을 만들어 내리라